

『사기』와 『역사』에 담긴 기록학의 기초

역사-인간[Homo Historicus], 사마천과 헤로도토스

A Study on the Archival Basis of *History* by Simaqian and Herodotus

오항녕(Oh, Hang Nyeong)*

1. 주제의 발견 : 두 가지 계기
2. 『사기(史記)』의 편찬과 아카이빙
 - 1) 답사
 - 2) 구술
 - 3) 문서-기록
3. 『역사(Histories)』의 집필과 아카이빙
 - 1) 답사
 - 2) 구술
 - 3) 문서
4. 역사와 문학의 경계에 대한 오해
 - 1) “기록하되 지어내지 않는다[述而不作]”
 - 2) 역사와 문학에 대한 혼동
5. 맺음말 : 역사학의 기초, 기록학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hallimoh@hanmail.net).

■ 투고일: 2020년 06월 29일 ■ 최초심사일: 2020년 07월 10일 ■ 최종확정일: 2020년 07월 22일

■ 기록학연구 65, 365-396, 2020, <https://doi.org/10.20923/kjas.2020.65.365>

〈초록〉

이 논문은 기록학의 관점에서 동아시아와 지중해의 두 역사가, 사마천(司馬遷)과 헤로도토스(Herodotos)가 남긴 두 역사서에 대한 오해를 검토한 글이다. 그 오해란 이들 역사가가 '나름의 상상으로 지어낸 것'이라는 류의 선입견을 말한다. 지어낸 것이 역사가 될 수 있을까?

2장과 3장에서는 사마천의 『사기』, 헤로도토스의 『역사』의 편찬, 집필 과정을 살폈는데, 사적(史蹟)의 답사, 구술(口述)의 채록, 기록의 정리라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인식을 기초로 4장에서는 역사가 허구일 수 있다고 보는 일련의 오해 또는 왜곡의 저변에는 사마천과 헤로도토스의 기록 활동에 대한 오해, 경험 학문으로서의 역사와 기록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기』나 『역사』 같은 역사서를 문학적 허구라는 관점에서 보는 견해는 역사 뿐 아니라 문학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런 오해나 왜곡은 한국 역사학이 기록학이라는 기초를 소홀히 한 데도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근대 분과(分科) 학문의 관점에서, 또는 국민 국가사의 관점을 중심으로 역사학의 범주를 좁게 설정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 아닌가 한다.

역사를 남긴다는 것은 “이 행위, 인물, 사건은 인간 기억 속에 살아 남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데서 출발할 것이다. 헤로도토스는 “그리스인의 것이건 야만인의 것이건 간에 빛나는 공적들이 어느 날 명성도 없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였고, 사마천은 “시골에 묻혀 사는 사람들도 덕행을 닦고 명성을 세워 후세에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렇듯 『사기』와 『역사』는 실제 있었던 인간의 경험을 남긴 역사서이다.

여기에는 “인간은 서로 다르다”고 이해하는 존재의 확장이 있다. 특정한 시공간(時空間)에서 “민족들은 서로 다르며”, “이집트에서 여자들은 서서 오줌을 누고 남자들은 쭈그리고 앉아서 오줌을 누는” 것처럼 풍속과 전통이 다른 것이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여 다름을 이해하기에 이르는 데 초석이 되는 인간의 지적(知的) 활동으로, 그 활동이 사실(事實)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인문(人文) 영역이 역사였다. 인간의 경험에 대한 호기심 넘치는 탐구와 기록, 그 결과 나타난 『사기』와 『역사』, 그리고 이의 보존과 전수는 인

간이 호모-히스토리쿠스(Homo-Historicus), 호모-아르키부스(Homo-Archivus)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 사마천, 사기(史記), 헤로도토스, 역사(Histories Apodexis), 역사학, 기록학, 아카이빙, 답사, 구술, 문학, 허구, 경험주의

〈Abstract〉

I examined the archival basis of two historians who wrote history books with the same title of 'History'; Simaqlan of ancient China and Herodotus of Halikarnassos. I examined a prejudice to these two history books, a misunderstanding of them as an imagination rather than a history. How can an imagination become a history?

First, I explained the common characteristics found in their compilation and writing of 'History.' Simaqlan and Herodotus did their field-works in historical sites, gathered oral-histories, and arranged archives they collected. These two historians heavily engaged in archival works in terms of verifying authenticity and reliability of their sources on the basis of historical empiricism. There are some misunderstanding on their archival endeavor and on the very nature of archives and historical studies as empirical studies.

Furthermore, this misunderstanding regarding them as literature came from a confusion over the concept of literature. The creativity of literature is not equal to the "fictitiousness" of history despite historical works sometimes may give us an impression by the way of describing and providing insight into a certain event(s) and a person(s).

As Herodotus said, a recognition of the differences of each race and human is a departure of historical archiving of the valuable experiences of human-beings. By doing so, natural results of archival behaviors, preservation of the records, and consistent inquiry of historian-archivists become a humanistic passage overcoming the current wrong trends of

historical studies confined to a narrow nation-history.

Keywords : Sima Qian (Sima Qian), *History*, Herodotos, *Histories Apodexis*, Archiving, Field Works, Oral History, Historiography, Literature, Fiction, Empiricism

1. 주제의 발견 : 두 가지 계기

필자는 장난삼아 역사학에는 아버지가 둘이라는 말을 한다. 동아시아에 서는 『사기(史記)』를 편찬한 중국 한(漢)나라의 사마천(司馬遷, BC.145~85 무렵)이 역사학의 아버지고, 지중해 지역에서는 『역사(Histories Apodexis)』를 쓴 소아시아 사람 헤로도토스(Herodotos, BC.484~425 무렵)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한다. 본고에서는 이 두 역사가의 저서가 성립된 과정을 조사하여, 그들의 기록 활동을 알아보고 이 기록 활동을 통해 역사학의 기초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 글을 쓰게 된 두 가지 계기가 있었다. 첫 번째 계기는 유시민의 『역사의 역사』를 읽고 서평을 쓰면서 생겼다.(오항녕, 2019) 유시민이 사마천의 『사기』를 설명하던 중에 괴통(蒯通)의 진술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마천의 서술에 따르면 괴통은 한신(韓信)에게 “용기와 지략이 군주를 떨게 만드는 자는 그 자신이 위태롭고, 공로가 천하를 덮는 자는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설득하여 독자 세력을 형성하도록 유도했다. 밀실에서 둘이 대화를 나누었으니 기록이 남았을 리 없다. ……소설가들이 쓰는 ‘전지적(全知的) 작가시점’을 사용한 것이다.(유시민, 2018, 72~73쪽)

한신은 한(漢)나라 때 장군이다. 초(楚)나라의 항량(項梁)과 항우(項羽)를 섬겼으나 중용되지 않자 유방(劉邦)의 수하가 되어 대장군이 되었다. 그는 유방을 도와 한나라 건국의 공신이 되었고 초(楚)나라 왕으로 임명되었으나, 모반죄로 체포되어 죽임을 당했다. 사냥에서 토끼를 잡고 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는 토사구팽(兔死狗烹)이라는 사자성어(四字成語)의 주인공이 바로 한신이다.

유시민의 말대로라면 사마천이 적어놓은 괴통의 말은 ‘나름의 상상으로 지어낸 것’이다. 이른바 전지적 작가시점에서 말이다. 과연 그럴까? 사마천은 역사가이다. 지어낸 것이 역사가 될 수 있을까?

두 번째 계기는 영화 『300』에 나온 다음과 같은 대사였다. 비중 있는 배역이 결정적인 장면에서 던진 발언이라 영화를 본 사람이라면 기억해낼 수 있는 대사가 아닐까 한다.

- ① “수백 세대가 지나 사람들이 이곳에 올 것이다. 아마 바다 멀리 학자들과 여행객들은 고대에 대해 알고자 하는 열망과 과거에 대한 호기심을 품고 올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평야를 돌아보고 돌과 파편을 보고 우리의 조국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겠는가? 그들의 삶은 아름다운 궁전이나 사원을 발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곡괭이는 영원한 건축이나 예술 작품을 파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스파르타인들은 무엇을 남기겠는가? 대리석이나 청동으로 만든 조각품이 아니라 바로 이것,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행하는 것을 남길 것이다.”
- ② “스파르타의 역사마저 지워버릴 것이다. 그리스의 모든 문서를 불태워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역사가의 눈을 뽑아버릴 것이다.”(잭 스나이더, 2006)

①은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가 출정을 앞두고 한 말이다. 이 연설은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이 레오니다스 왕을 설득하다가 실패한 뒤 분
에 못 이겨 하는 말인 ②와 선명히 대비된다. 크세르크세스 왕의 대사는 역
사학도가 아니라도 반(反)역사적, 반(反)문명적 발언이라고 느끼기에 족한
스크립트였다. 영화 『300』은 할리우드 영화의 문법을 충실히 따랐고, 또 오
리엔탈리즘에 젖은 시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도 두 발언은 편파
적이다.

그런데 두 언명은 흥미롭게도 수백 세대가 지나서도 후대가 확인할 스
파르타의 역사를 언급하거나(①), 그 역사를 담고 있는 그리스의 문서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②) 공통분모가 있다. 역사는 곧 기록이며, 그것
은 곧 해당 사회가 이룬 문명 자체이거나 문명을 상징한다는 인식이 그것
이다.

『300』이 참고로 삼았던 테르모필레(테르모필라이) 전투는 페르시아-그리
스 전쟁을 서술한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나오는 사실에 근거를 둔 영화였
다. 물론 『역사』에는 『300』의 발언은 나오지 않는다. 『역사』 속의 테르모필
레 전투는 영화가 묘사한 상황과 다르며, 크세르크세스 역시 『300』이 형상
화한 것처럼 악마가 아니라, 오히려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오향녕, 2013)

본고의 모티브는 여기서 생겼다. 유시민이라는 저술가의 책과, 오리엔탈
리즘에 의한 시각의 편향이 만연한 할리우드 영화라는 서로 다른 원천에서,
역사가 허구일 수 있다고 보거나, 역사를 허구로 소비할 수 있다는 생각의
증거를 발견한 것이다. 여기서 역사를 허구로 소비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일단 제쳐두고, 역사 자체의 허구성 문제만 먼저 다루기로 하자. 필자는 소
설이나 영화에서 역사를 호출하는 방식은 그 영역의 논리와 문법으로 판단
할 이슈이지 역사학도가 간섭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 엄밀
히 말하면 역사의 허구적 소비는 역사의 허구성에 종속되는 주제이다. 역
사의 허구성이란 주제가 풀리면 역사의 허구적 소비라는 이슈는 역사학의

간섭에서 풀려나거나 고유 영역이 알아서 할 선택적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모두 3개의 장을 설정하여 위의 주제를 풀어보려고 한다. 2장과 3장에서는 각각 사마천의 『사기』, 헤로도토스의 『역사』의 편찬, 집필 과정을 살폈는데, 흥미롭게도 사적(史蹟)의 답사, 구술(口述)의 채록, 기록의 정리라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답사(Field Work)는 실제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거나 일어나고 있는 곳에 직접 가서 보고 조사하는 것이다. 답사를 통해 구체적인 현장을 체험하는데, 그 체험은 곧 해당 사건이 일어난 무대와 배경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지식이 된다. 따라서 역사 탐구와 교육에서는 언제나 답사를 핵심 방법의 하나로 여기는 것이다.

구술(Oral testimony)은 문자를 주된 기억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던 시기나 집단의 기억 방식이다. 전쟁의 경험 등 문자-기록으로 남기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기억도 구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된 구술사는 역사가들이 듣는 것과 역사가들이 말하거나 쓰는 것 둘 다를 의미할 수 있다. 역사가가 자료를 제공하는 구술자를 인터뷰하면서 만들어진다.(윤택림, 2010, 7쪽)

기록(archiving)은 문자나 그림으로 적힌 공식 문서나 개인의 편지, 일기 가운데 증거나 기억으로 후대에 남길 가치가 있는 경험을 얼려두는 방법이다. 이는 조선시대 사관이 사초(史草)를 작성하듯이 스스로 기록을 남길 수도 있고, 다른 기관이나 인물의 기록을 정리, 보존하는 형식을 띠 수도 있다. 답사, 구술, 기록은 서로 겹쳐 수행할 수도 있고, 보완적이기도 하다.

이런 인식을 기초로 4장에서는 역사편찬이나 서술이 허구일 수 있다고 보는 일련의 오해 또는 왜곡을 다룰 것이다. 그 저변에는 사마천과 헤로도토스의 기록 활동에 대한 오해, 경험 학문으로서의 역사와 기록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사기』나 『역사』 같은 역사서를 문학적 허구라는 관점에서 보는 견해는 역사 뿐 아니라 문학에 대

한 부정확한 이해에서 출발하고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본고는 『사기』나 『역사』의 문학적 일반에 대한 논의를 다루지 않을 것이다. 역사서술이나 편찬에 문학적 허구가 포함되는 듯이 말하는 논의를 기록학 또는 ‘본래의 역사학’의 관점에서 비판하며, 다시 한번 역사학의 기초를 확인할 뿐이다.

역사 또는 역사학에 대한 한국 학계의 이런 오해나 왜곡은 역사학이 기록학이라는 기초를 소홀히 한 데도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과도하게 근대 분과(分科) 학문의 관점에서, 또는 국민국가사의 관점을 중심으로 역사학의 범주를 좁게 설정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 아닌가 한다. 역사학이 담아야 할 ‘역사-인간[Homo-Historicus]’에 대한 이해는 ‘사실과 기록’의 성격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을 촉구한다. 이제 역사-인간의 고전적 현현(顯現)인 사마천과 헤로도토스의 유산을 독해하여 역사학의 기초인 기록학의 의의를 드러내보고자 한다.

2. 『사기(史記)』의 편찬과 아카이빙

『사기』는 모두 130권, 52만 6천 5백자의 역사서이다.¹⁾ 본기(本紀) 12편, 표(表) 10편, 서(書) 8편, 세가(世家) 30편, 열전(列傳) 70편이다. 사마천은 이 역사서를 종이에 쓴 게 아니다. 죽간(竹簡)이라고 불리는 매체에 기록했다. 아마도 분량으로 치면 당시 어지간한 집 한 채에 가득 차고도 넘쳤을 것이다. 사마천의 『사기』에 허구(虛構 fiction)가 있는가 어떤가를 논하기 전에 먼저 이 방대한 사실을 어떻게 수집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로 보

1) 중화서국(中華書局)에서 간행한 표점본(고문에 구두점을 찍은 판본) 『사기』는 55만 5,660자로, 저소손(褚少孫) 등이 보완하여 가필한 3만여 자가 더 수록되어 원본보다 많다. 참고로, 사서(四書) 중 가장 긴 『맹자(孟子)』가 3만 4천 자(34,685) 정도이다.

이다. 사마천이 역사자료를 얻은 방법은 앞서 살펴본 답사(踏査), 구술(口述), 문서(文書)-기록을 통해서였다. 세 가지 행위는 각각 독립적인 사료(史料) 수집 행위이기도 하고, 답사를 통한 구술 채집, 문서를 통한 구술 검증 등과 같이 상호 보완하는 수집 행위이기도 하다. 편의상 세 범주에서 사마천의 활동을 확인해보겠다.

1) 답사

한(漢)나라는 현재 중국의 티벳, 신장(新疆), 위구르, 만주 지역을 제외한 영토를 확보했지만, 그것만으로도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넓은 통일제국을 이루고 있었다. 조선(朝鮮)이나 일본보다 매우 넓으므로, 사마천의 답사는 스케일이 큰 공간 감각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 먼저 항우(項羽)와 유방(劉邦)이 진(秦)나라 수도인 서안(西安), 즉 함양(咸陽)으로 진격할 사건에 대한 사마천의 기록을 참고해보자.²⁾

항우와 유방은 명목상 초(楚)나라의 군주였던 회왕(懷王)으로부터 먼저 관중(關中), 즉 함양을 차지한 자가 왕이 된다는 약속을 받는다. 유방은 팽성(彭城)에서 군사를 일으켰는데, 후일 송(宋)나라 수도인 개봉(開封)→낙양(洛陽)→남양(南陽)→남전(藍田)을 거쳐 항우보다 함양으로 먼저 들어갔다. 한편 항우는 황하(黃河)를 건너 거록(鉅鹿)에서 장한(張翰)이 거느린 진나라 군대와 대전투를 벌인 뒤, 함곡관(函谷關)과 홍문(鴻門)을 거쳐 뒤늦게 함양으로 들어갔다. 이들이 서진(西進)한 거리는 대략 2천~2천 5백km로 추정된다.

이런 거리 감각을 염두에 두고 사마천의 답사 행로를 간단히 추적해보겠다. 연구에 따라서 사마천의 여행을 3차로 보기도 하고, 7차로 보기도 한

2) 진나라의 수도는 서안이고, 함양은 서안 동쪽인데 서안과 병칭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였다. 당나라 때는 서안을 장안(長安)으로 바꾸어 수도로 삼았다.

다.(藤田勝久, 2004) 이는 사마천이 아버지 상(喪)을 당했던 기간을 나누어 보는지, 또는 지역에 따른 답사의 여정을 차수에 고려할 것인지에 따른 차이다. 본고에서는 간략히 3차 답사로 요약하겠다.

(1) 1차 답사

학계에서는 1차 답사를 사마천이 20세 무렵으로 보는 듯하다. 그는 현재 호남(湖南), 호북(湖北)에 걸친 장강(長江) 주변, 강소(江蘇)와 절강(浙江) 지역인 강남(江南)과 강회(江淮), 그리고 제(齊)나라와 노(魯)나라 산둥 지역을 답사하였다. 지역은 다음 몇 군데로 정리할 수 있다.

- 남쪽으로 강(江), 회(淮)를 다님 : 장강과 회수를 말한다.
- 구역산(九嶷山)에 올라 순(舜)임금의 행적을 살펴봄 : 순의 무덤이 있다고 함.
- 회계산(淮稽山)에 올라보고 우혈(禹穴)을 탐방함 : 우의 무덤임
- 북쪽으로 문수(汶水)와 사수(泗水)를 건너 제나라와 노나라 지역에서 공자의 유풍(遺風)을 공부함
- 굴원(屈原)이 강물에 몸을 던진 원수(沅水)와 상수(湘水)도 다녀봄.
- 양(梁), 즉 위(魏)나라 지역과 초(楚)나라 지역을 지나 장안으로 돌아옴.

이렇게 가는 곳마다 사마천은 장차 역사편찬을 위한 사료를 수집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회음(淮陰)에서 「하거서(河渠書)」 「춘신군열전(春申君列傳)」의 사료를, 설현(薛縣)에서 「맹상군열전(孟嘗君列傳)」의 사료를 채집하였다.

(2) 2차 답사

사마천이 35세 때인 기원전 111년, 한 무제의 명을 받아 파촉(巴蜀) 이남, 즉 서남 지방의 문물을 관찰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 경험은 『사기』 중에서도 특히 경제활동을 다룬 「화식열전(貨殖列傳)」 집필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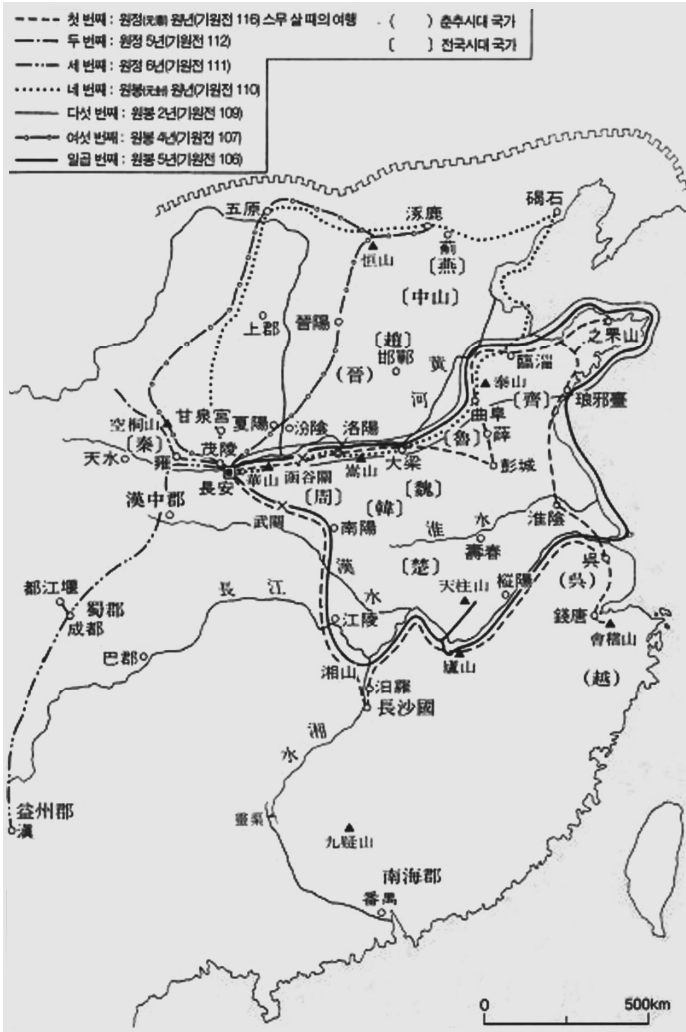
- 장안 → 한중(漢中, 섬서성 남쪽) → 파군(巴郡, 사천성 중경시) → 건위군(사천성 선빈현) → 장가군(귀주성 황평현) → 촉군(蜀郡, 사천성 성도시) → 영관도(零關道, 사천성 노산현) → 손수(孫水, 안닝하) → 월수군(사천성 서창현) → 심려군(사천성 한원현) → 장안

(3) 3차 답사

2차 답사 한 해 뒤 사마천은 다시 답사를 떠났다. 이번에는 봉선 대제(封禪大祭)를 위해 한무제를 수행하여 태산(泰山)으로 갔다. 도중에 아버지 사마담(司馬談)이 위독하다는 전갈을 듣고 낙양으로 돌아와 상을 치렀다. 그리고 다시 산둥으로 가 봉선에 참관하였다. 이후 하북(河北), 산서(山西), 내몽고 등 북쪽 변방 지역을 답사하였다.

- 낙양 → 산둥 → 봉래산 → 태산(봉선 대제) → 갈석산(하북성 경계) → 요서군(하북성 노룡현) → 구원군(九原郡, 내몽고) → 감천

이상 세 번에 걸친 사마천의 답사를 기존 연구에 따라 지도상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마천의 답사 코스.(후지타 가쓰히사, 2004) 후지타는 사마천이 7차 답사를 한 것으로 보았는데, 필자는 1차 답사는 후지타와 같고, 후지타의 2~3차 답사를 2차 답사, 4~7차 답사를 3차 답사로 정리하였다.]

2) 구술

지나간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나 증인들의 말을 통해 사료를 수집하는 활동을 구술이라고 하고, 그 구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역사를 탐구, 서술하는 영역이 구술사라고 할 것이다. 문자를 사용하기 전에도 사람들은 입에서 입으로 자신들의 경험을 후대에 전달했기 때문에 구술은 ‘역사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말을 사료로 수집하는 전통은 “왼쪽 사관은 사실을 기록하고, 오른쪽 사관은 말을 기록한다.[左史記事, 右史記言.]”라는 말에서도 확인된다. 이런 관점에서 『춘추(春秋)』는 사실이나 행동을 주로 기록한 역사서로, 『서경(書經)』은 주로 말을 기록한 역사서로 이해하는 것이다.³⁾

사마천의 답사와 구술의 채록은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 앞의 1차 답사에서도 구술 기록의 채집이 다수 발견된다. 사마천은 굴원(屈原)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강호의 한 노인을 만나 굴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다. 전국(戰國) 시대 초(楚)나라의 충신이었던 굴원은 초나라 회왕(懷王)을 섬기면서 간언을 자주 올려 두터운 신임을 받았으나, 회왕이 죽은 뒤에 대부인 자초(子椒)와 회왕의 동생이자 영운인 사마자란(司馬子蘭)의 시기를 받아 조정에서 쫓겨나 귀양살이를 하던 중 장사(長沙)의 먹라스수(汨羅水)에 투신하여 죽었던 인물이다. 사마천에게 굴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바로 굴원의 동료의 손자였다. 이 구술이 「굴원가생열전(屈原賈生列傳)」의 기초자료가 되었다.

사마천이 옛 한(韓)나라 지역에서 어떤 주점에 들렀다. 주점 주인은 한나라 왕족이었다가 저자거리에서 불량배들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가기도 했다가 유방의 장군이 되었던 한신(韓信)의 주방장을 지낸 이의 아들이었다고

3)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의 서술이다. 또한 『예기(禮記)』 「옥조(玉藻)」에는 “거동하면 좌사가 따르며 기록하고, 말을 하면 곧 우사가 이를 기록한다.(動則左史書之, 言則右史書之.)”라고도 하였다. 왼쪽, 오른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한 사실을 남기는 것이라는 의미로 보면 될 것이다.

한다. 여기서 들었던 이야기가 「회음후열전(淮陰侯列傳)」의 자료가 되었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사마천은 주요 인물들의 옛집을 방문하여 많은 일화를 들을 수가 있었다. 「번역등관열전(樊鄴滕灌列傳)」이 대표적이다. 진나라를 멸망시킨 뒤 항우가 유방을 죽이려고 마련한 홍문연(鴻門宴)에서 유방의 목숨을 지켰던 번쾌(樊噲)는 유방과 같은 패현(沛縣) 사람이었다. 그가 개 잡는 일을 생업으로 살았다고 사마천은 기록했는데, 이는 패현 지역에서 채록한 구술에 근거하였을 것이다.

같은 열전에는 하후영(夏侯嬰)과 유방의 일화도 수록되어 있다. 유방이 장난을 치다가 하후영에게 부상을 입혔는데, 정장(亭長)이었던 유방이 중벌을 받을까봐 하후영이 상처를 입힌 일이 없다고 증언했다는 것이다.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이 열렸는데, 하후영이 위증죄로 옥살이를 하게 되었는데도 그는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목도 구술 채집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 열전 끝에 사마천이 남긴 사평(史評)으로 증명된다.

내가 풍현(豐縣)과 패현(沛縣)으로 가서 진나라 때부터 살았던 그곳 노인을 찾아 소하(蕭何), 조참(曹參), 번쾌, 등공(滕公)의 옛날 집과 그들의 평소 사람됨을 수소문했는데, 세상에 전해지는 것과 달랐다. 그들이 칼을 휘둘러 개를 잡고 비단장사나 할 때, 어찌 파리가 천리마의 꼬리에 붙어 천리를 가듯이 한 고조를 만나 조정에 이름을 날리고 자손 대대로 그 은덕을 남길것이라고 생각하였겠는가. 내가 번쾌의 후손 번타광(樊他廣)과 친했기 때문에 한 고조와 공신들의 그 당시 얘기를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3) 문서-기록

짐승의 뼈나 돌, 식물의 잎, 종이 등에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자신의

경험과 관찰을 붙잡아두는 형식은 역사-인간이 보여주는 가장 일반적인 형식의 기억 방법일 것이다.(오항녕, 2010) 국가가 등장한 뒤로 기록은 인구와 세금의 파악을 위한 공무(公務)의 핵심이 되었다. 국가는 늘 등록하고 측정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노동, 곡물, 토지, 배급의 단위를 관리해야 했다.(제임스 스콧, 2017, 188~198쪽) 사관은 그 공무의 소산인 기록을 남기거나 정리하였던 존재였다. 사마천은 아버지 사마담(司馬談)의 뒤를 이은 사관이였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1장의 문제제기에서 등장했던 괴통(邾通)의 사례를 다시 살펴보자.

유방이 한창 항우와 천하를 다투던 중, 한신은 제나라 왕이 되었다. 범양(范陽) 출신 괴통은 한신을 만나 항우와 손잡아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득하였으나, 한신은 유방이 자신을 대장군으로 삼았다며 거절하였다. 그러자 괴통은 거짓으로 미친 척하고 무당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방이 천하를 통일한 뒤 한신은 결국 토사구팽(兔死狗烹)의 신세가 되었다. 여후(呂后)의 숙임수에 빠져 장락궁(長樂宮) 종실(鍾室)에서 죽음을 당하며 한신은 “괴통의 계책을 쓰지 않은 것을 안타깝다”는 말을 남겼다. 여후와 한 고조는 한신의 죽을 때 한 말을 전해 듣고 제나라에 조서를 내려 괴통을 체포하도록 하였다. 한 고조는 괴통이 회음후 한신에게 모반을 권했는지 심문하였다.

심문 내용에는 괴통이 한신에게 모반하도록 설득한 일, 한신이 자신의 계책을 쓰지 않은 일에 대한 안타까움이 들어 있다. 자신의 계책대로 했으면 한 고조가 한신을 이길 수 없었으리란 말도 덧붙였다. 한 고조가 팽형(烹刑)을 명하자, 괴통은 ‘개는 본래 자기 주인이 아닌 사람을 보면 짚는 법’이라는 변설로 한 고조의 마음을 바꾸었고, 풀려날 수 있었다.

한 고조가 괴통을 심문했다면 앞서 인용한 것과 같은 괴통의 말, 즉 ‘밀실의 대화’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으리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을

까? 요즘의 심문조서 같은 형식의 사료(史料)가 남아 있었다는 가정이다. 나아가 그 심문 내용을 토대로 사마천은 한신을 다룬 「회음후열전」에서 순차적으로 편집한 것이 아닐까? 역사 편찬에서 이렇게 추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다음은 조선시대 실록 편찬의 기준이 되었던 「범례」의 제1조이다.

사관史官의 시정기時政記, 주서注書의 일기日記, 서울과 지방의 겸춘추兼春秋의 기록 외에, 비변사備邊司 장계축狀啓軸, 의금부義禁府 추안推案 및 형조刑曹의 참고할 만한 중요하고 핵심적인緊關 문서, 사변事變과 추국推鞠에 대한 주서 일기도 마찬가지로 가져와서 검토하여 갖추어 적는다.

이 범례에서 괴통의 진술과 같은 심문은 기록 생산의 주체나 사안의 성격으로 보아 ‘의금부 추안’이나 ‘사변 또는 추국에 대한 주서 일기’에 해당할 것이다. 반역 사건은 주로 의금부를 중심으로 추국청(推鞠廳)이 설치되어 정승급이 위관(委官)을 맡고, 관계 부처인 형조, 사헌부와 사간원 관원이 심문에 참여한다. 이를 기록하는 등록 낭청(謄錄郎廳)도 따로 있었고, 사관이나 승정원 주서 역시 이 사건을 나름대로 기록하여 사초(史草)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기록한다.

이미 춘추시대부터 국가의 공식 기록관리체계가 마련되었던 전통의 연장에서 한나라도 사관제도를 갖추고 있었다.(內藤虎次郎, 1949; 李宗侗, 1965) 사마천은 무엇보다도 국가 공무원의 신분이었다고, 그것도 최고 역사-공무원(The National Archivist)이었다. 태사공(太史公)이라고 했을 때 클 태(太), 역사 사(史)가 그런 의미이다. 더구나 당시 사관은 세습제였다. 그 때문에 당연히 괴통의 심문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었고, 그 심문 기록을 기초로 괴통의 말을 『사기』의 해당 열전에 정리했다고 보는 편이 역사의 실상에 가까울 것이다.

이외에도 제국 성립 이후 관청의 공문서 관리체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설명되지 않는 기록이 『사기』에는 무수히 수록되어 있다. 사회질서와 조화를 위한 문화적 성과는 「예서(禮書)」와 「악서(樂書)」에, 법률과 역법은 「율서(律書)」와 「역서(曆書)」에, 천문과 우주의 관찰은 「천관서(天官書)」에, 황제와 천하의 예식은 「봉선서(封禪書)」에, 농업사회의 치수(治水)를 위한 정보는 「하거서(河渠書)」에, 재정과 지출의 균형을 위한 「평준서(平準書)」 등이 그것이다. 표(表)나 본기(本紀)의 기록도 물론이다.

앞서 유방이 항우보다 진나라 수도 함양에 먼저 도착했음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유방의 참모였고 나중에 한나라 재상이 되었던 소하(蕭何)는 함양의 승상부(丞相府)에서 지도(地圖)와 전적(典籍)을 먼저 확보하였다. 제국 역시 기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셈이다. 한나라의 성립의 기초 중 하나는 소하가 챙긴 지도와 전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3. 『역사(Histories)』의 집필과 아카이빙

한(漢)나라라는 제국(帝國)의 공무원인 사관이었던 사마천과 달리 헤로도토스는 세상에 벌어지는 사건과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 지식인이었다. 그가 편찬한 『역사』는 모두 9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중해 지역의 세계사라고 할 것이다. 종종 『역사』를 ‘페르시아 전쟁사’로 축소하여 보는 경우도 있는데, 합당하지 않은 듯하다.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투키디데스(Thucydides)에 비하여 역사학적 증거력이 약하다는 의심을 받기도 하였다. 『역사』에 신화나 전설 같은 이야기를 수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는 직접 보고 듣고 문서 등의 자료를 보아 서술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의 기초에 충실하였던 역사서였다.(김봉철, 1995; 김경현, 2005)

이 글은 할리카르나소스(Halikarnassos) 출신 헤로도토스가 제출하는 탐사 보고서이다. 그 목적은 인간들의 행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되고, 헬라스인들과 비(非)헬라스인들의 위대하고도 놀라운 업적들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 무엇보다도 헬라스인들과 비헬라스인들이 서로 전쟁을 하게 된 원인을 밝히는 데 있다.(헤로도토스, 『역사』, 24쪽)

헤로도토스가 한 말을 요약하면 탐구와 기억이라고 할 것이다. 탐구는 역사의 연구와 교육의 주요한 방법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문제(주제)의 확인과 정의(定義)→자료의 수집→사실의 검증의 단계를 밟았다.

『역사』의 1권~4권은 지중해 각 지역의 흥망성쇠와 풍속, 5권은 아테네의 흥성과 페르시아 왕 다레이오스(다리우스)의 살라미스 원정, 6권은 스파르타의 상황과 마라톤 전투, 7권은 크세르크세스 왕의 원정과 테르모필라이 전투, 8권은 아르테미시온 해전, 아테네 점령, 살라미스 해전, 9권은 플라타이아이 전투, 미칼레 전투가 서술되어 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역시 흥미롭게도 사마천의 『사기』처럼 답사, 구술, 기록이라는 역사 탐구의 세 가지 주요 방법을 통해 집필되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1) 답사

헤로도토스는 기원전 444년 경 10여 년에 걸쳐 수 차례 여행을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금 터키의 보드룸(Bodrum) 시, 즉 소아시아 서남부 카리아(Karia) 지방의 할리카르나소스에서 태어났다.

그는 고향에서 정변에 간여되어 망명했다가 아테네에 매우 오래 체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기서 페리클레스(Perikles), 소포클레스(Sophokles) 등과 교류했다고 하니, 페리클레스 치하에서 아테네가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으므로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또 아테네가 중심이 되어 계획한 남이탈리아 투리오이(Thourioi) 식민지 건설에 참여했으며, 거기서 생을 마감

했다고도 한다.

지중해 지역에 살면서 헤로도토스는 다른 문화, 낯선 사람들을 만나러 오지(奧地)로 여행을 갔고, 그 경험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겼다. 동쪽으로는 바빌론과 수사, 서쪽으로는 리비아의 키레네, 바르케, 남쪽으로는 나일 상류의 시에네(현 아스완댐), 북쪽으로는 흑해 북안의 그리스 식민도시인 오르비아를 중심으로 크리미아 반도, 우크라이나 남부 주변에까지 답사하였다. 이집트의 피라밋을 보면 피라밋 건설에 대한 정보를 얻어 “피라미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건조되었다”라는 식으로 해설해주었다. 이와 유사한 다음 서술을 보자.

- ① 리디아, 마네스의 아들 아티스가 왕위에 있을 때, 리디아 전역에 극심한 기근이 들었다. 기근이 그치지 않자 기분을 달랠 수단을 찾기 시작했다. 이때 주사위, 공기놀이, 공놀이 등 모든 종류의 유희가 고안되었다고 한다. 이들 놀이를 발명하여, 이틀에 하루는 밥 먹는 것을 잊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이를 하고 다음날은 놀이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18년을 지냈다고 한다.(86쪽)
- ② 페르시아인은 우상(偶像)을 비롯한 신전이나 계단을 짓는 풍습이 없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자는 어리석게 여긴다. … 페르시아인은 술을 매우 좋아하지만, 페르시아에서는 사람 앞에서 토하거나 방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일은 엄중히 지켜지고 있지만, 중요한 일은 술을 마시면서 상의하는 습관이 있다. 그 회의에서 모두 찬성한 것이라도, 회의장으로 제공된 집의 주인이 이튿날 술에서 깬 일동에게 전날의 결정사항을 재론하여 술 깬 상태에서 찬성을 얻으면 채택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폐기한다. …… 마찬가지로 내가 칭송하고 싶은 것은 국왕조차 단 한 번의 죄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다는 것, 또한 기타 일반 페르시아인들도 자기 하인에게 단 한 번의 과실로 치명적인 고통을 주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이다. ……페르시아에서 가장 치욕적인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는 돈을 빌리는 것이다. 돈을 빌리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돈을 빌리게 되면 아무래도 거짓말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112쪽)

- ③ 이 나라 바빌론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벌꿀에 담가 매장한다.(147쪽)

헤로도토스는 해당 지역의 지리, 풍습이나 민속, 정치 등을 세세히 설명하였다. 그의 『역사』가 지리학, 인류학, 문학, 정치학 등에서 연구되어 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정인철, 2018) 동아시아에서 ‘사(史)’는 오늘날 정치학, 경제학, 지리학, 인류학이라고 부르는 분과학문을 포괄했던 것을 떠올린다면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이다. 19세기 이래 본격화된 학문의 분화 이전, 사마천과 헤로도토스 시대에는 변화하는 인문의 영역이 모두 역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특히 여행, 답사를 통한 헤로도토스의 관찰과 태도는 근대 유럽에서 전유(專有)했던 야만과 문명의 이분법과 거리가 멀었다. 고대 그리스인과 ‘미개인(Barbar)’ 사이의 문화적 차별화는 그리스인의 특성이 아니었다. 이 ‘미개인’이란 단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를 지칭할 뿐이었다. 즉 주절주절 알 수 없는 소리를 지껄이는 사람이란 의미였던 것이다. 이소크라테스(Isokrates, BC.436~338)에 의해 헬레네인과 미개인의 대비가 문화와 야만의 대비로 넘어가기 전까지 그러하였다.(피쉬, 2007, 20~24) 헤로도토스에게서 보이는 평심한 서술은 바로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는 시대의 산물로 보인다.

2) 구술

헤로도토스는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아테네에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강연을 했고, 군중들은 그가 알려주는 세계의 지식에 열광하였

다고 한다. 이것이 거꾸로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지어낸 내용이 많을 것이라는 의심을 사는 이유가 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근거 없는 의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헤로도토스는 “나는 들은 대로 전할 의무는 있지만, 그것을 다 믿을 의무는 없다. 이 말은 이 책 전체에 적용된다”고 말한 바 있다.(710) 또 “나는 그것이 정당한지 아닌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전해오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뿐이다”라고도 하였다.(624) 그가 답사를 갔던 현지에서 익명의 지역 주민이나 사제(司祭) 집단에게 들은 바를 기록하였는데, ‘이집트인들’ ‘스퀴타이족’ ‘카르타고인들’ 하는 식으로 구전(口傳)의 주인공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해놓았다. 헬라스인 등에게 들은 이야기를 인용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 ① 이상은 헬라스인들 가운데 라케다이몬인들만이 전하는 이야기고, 이번에는 다른 헬라스인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기술하고자 한다.(576쪽)
- ② 이상은 헬라스인이 전하는 계보이다.(577) 한편 페르시아인들이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클레오메네스는 칼을 받아 들자마자 정강이부터 시작해 제 몸을 훼손하기 시작했다. 그는 정강이에서 허벅지로, 허벅지에서 엉덩이와 옆구리로 올라가며 세로로 제 살을 찢더니 그제 배를 찢고 죽었다. 대부분의 헬라스인들에 따르면, ……”(589쪽)

3) 문서

『역사』에는 기록된 문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서술들이 많다. 우선 헤로도토스는 아이스킬로스(Aischylos)의 『페르시아인들』 같은 문학작품이나 비명(碑銘), 신탁(神託) 모음집 등을 이용했다. 그뿐 아니라 답사하는 곳의 역사기록을 이용했는데, 이집트의 역사기록을 두고 “이집트인 중에서도

농경 지대에 사는 자들은 세계 그 어떤 민족보다 과거의 기록을 정성껏 잘 보존하고 있고, 내가 체험을 통해 알고 있는 어느 나라 주민보다 고사(故事)에 정통하다.”라고 평했다. 그는 고대 서아시아나 이집트의 기록들을 해독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의 구전이나 구술로도 확보할 수 있지만 정보의 체계성으로 미루어 이미 누군가에 의해 작성된 기록을 확보하여 서술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도 적지 않다.

- ①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 측은 약 6,400명이 전사하고, 아테나이 측은 192명만이 전사했다. 양측 전사자 수는 그러했다.(613쪽)
- ② 아시아에서 온 함선들은 1,207척인데, 함선당 200명으로 계산하면 원래 각 부족들로부터 차출한 선원은 241,400명이다. 이들 함선들마다 토착민 선원들 외에 페르시아인들과 메디아인들과 사카이족 선원이 30명씩 타고 있었는데, 이들 추가 인원을 합하면 36,210명이 된다. ……보병은……낙타 기수들과……해군과 육군을 둘 다 합치면 2,317,610명에 이른다.(729쪽)

이런 기록이 남게 된 데는, 헤로도토스가 말한 이집트의 사례에서 보듯이, 공식 기록을 남기는 서기(書記)=사관(史官)=아키비스트의 존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븐 할둔(1332~1406)의 『역사서설』에도 언급되었던 중동 지방 국가들의 전통일 것이다.(Ibn Khaldūn, 2003, 253~254쪽) 사마천을 언급할 때 말했던 기사(記事)와 기언(記言)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한다.

이븐 할둔은 『역사서설』에서 ‘문서청’의 존재를 설명했는데, “서기(書記)가 수행하는 직능들 가운데 하나는 칙서(勅書)의 작성이다. 이것은 군주가 사람들을 접견할 때 서기가 그의 앞에 앉아 각종 청원에 대하여 군주가 내리는 결정을 가장 간결하고 문체상으로도 완벽한 방식으로 기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정은 그 상태 그대로 공포되거나 문서로

필사되어 청원자의 손에 건네진다.”라고 밝히고 있다. 『역사』에 나오는 아래의 서술이 어떻게 가능했는가에 대해서는 이븐 할둔의 설명에 그 답이 있다.

- ① (그리스 공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르타바노스가 자신이 크세르크세스의 숙부라는 것을 믿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하, 서로 상반된 의견들이 제시되지 않으면 그중 더 나은 의견을 고르지 못하고 이미 제시된 의견을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638쪽)
- ② 관전(觀戰)하고 있던 크세르크세스에게 그녀의 함선이 다른 함선을 들이받는 것이 눈에 띄었는데 그의 측근 중 한 명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전하, 아르테미시아가 선전하며 적선을 침몰시키는 것이 보이시나이까?” 과연 아르테미시아가 그렇게 했느냐고 그가 묻자, 그들은 그렇다고 대답했다.(804쪽)

4. 역사와 문학의 경계에 대한 오해

사마천과 헤로도토스는 요즘 학자들처럼 각주(脚註)를 통해 하나하나의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근대 논문 쓰기가 이들의 본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연구윤리를 들이대며 각주의 엄밀성을 따지는 것은 당치 않은 일이다. 근대 분과학문인 역사학은 ‘역사 일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아래 <표>의 맨 오른쪽 3범주 가운데서도 일부만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그에 비해 사마천과 헤로도토스는 1범주를 답사의 형식으로 찾아다니고, 구술과 기록을 통해 2범주의 기록 일반을 확보함으로써 지역, 문명에 대한 폭넓은 문화유산을 남겨주었다고 할 수 있다.

범주	1 : 행위	2 : 전달=저장기억	3 : 이야기=기능기억
주체 및 장소	나 공무원 학생 과학자.....	나/자손의 기억 기록관/박물관/도서관 캐비닛 번역자.....	자손 영화감독 역사교 교수 분야사가.....
산출물	일기/편지 일지/숙제 사진/동영상 사초(史草)	컴퓨터 파일 족보 전시 또는 폐기 실록(實錄)	평전/자서전 드라마/영화 ‘광해’ 교과서/저술, 논문 ‘실록이란 무엇인가’

답사, 구술, 문서를 통해서 사마천과 헤로도토스는 저장기억의 실증성이 확보하였다. 그 실증성의 힘은 다른 사람도 증거를 통해 스스로 기억하고(또는 기억을 수정하고) 실상을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증거를 통해 다른 견해를 제시할 수도 있고, 다른 견해도 불구하고 서로의 견해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수도 있다.

사마천과 헤로도토스는 사실(事實)과 자신의 견해를 혼동하지 않았다. 관찰, 전해 들은 이야기, 자신들이 본 기록과, 자신의 견해를 선명하게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것은 “이에 대한 나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태사공은 이렇게 생각한대태사공왈(太史公曰)로 시작되는 사론(史論)의 형식을 띠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역사서인 『사기』와 『역사』에 지어낸 허구가 섞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듯하다. 다음 구분을 보자.

사실(기록류, 서적 등)

창작(사마천의 여행 견문, 사람들의 구전) (후지타, 2004, 10쪽)

중국 고대사 전문가인 후지타조차도 견문=답사와 구술을 아무렇지도 않게 ‘창작’으로 보고 있다. 후지타의 서술이 사마천의 『사기』에 대한 충실한 고증이라고는 해도, 이러한 인식은 역사편찬이나 서술의 본령에 대한 심각한

한 오해를 초래한다. 이는 사마천의 편찬에 순서가 뒤바뀌거나 인물 설정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과는 다른 사안이다. 또한 사마천이 고의든 실수든 잘못 기록한 데가 있느냐는 문제와도 다른 사안이다.⁴⁾

나아가 신화나 전설을 기록으로 남겼다고 해서 허구를 지어냈다고 혐의를 둘 수는 없다. 사람들이 어떤 신화나 전설을 공유하는 것은 그들의 심성(心性)과 전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즉, 신화와 전설은 역사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이나 집단이 그런 신화와 전설을 공유, 전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역사이며, 역사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어서 역사 편찬이나 서술의 허구성에 대한 오해를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하려고 한다. 첫째, 역사는 경험주의의 원칙에 따라 조사, 논증, 서술되는 것으로, 지어내는 일은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 역사를 문학적 허구로 보는 관점에는 역사에 대한 오해 뿐 아니라, 문학 자체에 대한 오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문학=허구라는 잘못된 인식이 그것이다.

1) “기록하되 지어내지 않는다[述而不作]”

영화 『300』에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가 “This is Sparta!”라고 외치며, ‘스파르타의 물과 흙’을 요구하던 페르시아 사신을 우물에 밀어 넣는 장면이 있다. 이렇게 할리우드에서 ‘허구로 소비한 역사’는 실제 역사·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에는 나오지 않는다. 다레이오스 때 사신을 보낸 일이 있었지만 크세르크세스는 전령을 보내지 않았다고 헤로도토스는 기록하였다.

크세르크세스는 아테나이와 스파르테에는 흙을 요구할 전령을 보내

4) 이런 이유로 역사학에서는 사료비판이 중요하다. 사실을 검증, 확증하기 위한 사료비판이야말로, 역사학이 ‘마음대로 지어내기’를 얼마나 멀리하는 학문인가를 보여준다.

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전에 다레이오스(다리우스)가 같은 목적으로 전령들을 보냈을 때, 아테나이인들은 전령들을 구덩이 속에, 스파르테인들은 우물 속에 던지며 거기서 왕에게 줄 흠과 물을 가져가라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크세르크세스는 흠과 물을 요구할 전령들을 보내지 않았다.(697쪽)

헤로도토스는 '내가 들은 그대로 기록하는 일'에 종사했다. 이 점은 사마천도 마찬가지였다. 헤로도토스는 어떤 사안에 대한 도덕적 판단조차 유보했다. 자신은 어떤 사건이 정당한지 아닌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전해 오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뿐임을 강조하였다.

(늑대의 전설에 대해) 아이굽토스인들의 이 이야기가 믿기는 사람은 믿어도 되리라. 하지만 내가 이 책을 쓰며 고수하는 원칙은 여러 민족의 전승을 내가 들은 그대로 기록하는 일이다.

이러한 헤로도토스의 태도는 “백이와 숙제 같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들은 이처럼 어진 덕망을 쌓고 행실을 깨끗하게 했어도 굶어죽었다”며 애석해하는 사마천의 사론(史論)과 결에서 차이가 있다. 허나 사론에 나타난 정서의 문제일 뿐 역사는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태도는 사마천과 헤로도토스가 같았다.

그러므로 “공자는 권선징악(勸善懲惡)이라는 도덕규범에 따라 ‘깎을 것은 깎고 보탬은 보탬’ 역사를 썼기 때문에 『춘추』의 내용에 대한 진위와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춘추필법(春秋筆法)’ 그 자체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진술(유시민, 2018, 65쪽)은 오류이다. 또한 사실을 다루는 역사가와 반대편에선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는 극단적 사례로 춘추필법이 소개한 것도(유시민, 232쪽) 두말할 나위 없이 오해이다.

직서(直書)를 춘추필법이라고 한다. 속사비사(屬辭比事), 문구를 잇고 사

안을 나열하는데, 한 문장, 한 사안으로는 크게 색다를 것이 없지만, 동류의 사건을 모으고 종합하면 포핍(褒貶)의 숨은 뜻이 드러난다는 것인데, 이는 더 연구할 문제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유시민이 말하듯 ‘보텔 것은 보태는’ 식으로 서술된 결과가 『춘추』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서술하는 것이 춘추필법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19세기 서구 역사가들은 춘추필법을 거부했다. 사실을 무시하고 왜곡하면 역사가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유시민은 이해했는데,(233 쪽) 춘추필법은 사실을 무시하거나 왜곡하지 않는다는 데서 출발한다.

특히 사마천이 “나는 지난 일을 간추려 정리하려고 할 뿐 창작하려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것을 『춘추』와 비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라고 한 말은 『춘추』를 배격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기』를 감히 『춘추』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겸손한 말이었다.

2) 역사와 문학에 대한 혼동

사마천의 『사기』가 보여준 드라마틱한 인간사와 절묘한 묘사 때문에, 종종 『사기』의 문학성에 대해 칭송하기도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사기』를 문학 작품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점도 있다. 실로 “위대한 역사가는 의미 있는 역사적 사실로 엮은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독자의 내면에 인간과 사회가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과 감정의 물결을 일으킨다. 역사는 사실을 기록하는 데서 출발해 과학을 껴안으며 예술로 완성된다”말은(유시민, 2018)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황상이 공신 이십여 명을 봉하였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밤낮으로 공을 다투었다. 황상이 낙양의 남궁(南宮)에 있으면서 멀리서 여러 장수들이 종종 모래밭에 모여 앉아 이야기 하는 것을 바라보고 묻기를 “이들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니, 유후가 대답하기를 “폐하께서는

모르십니까? 이들은 모반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사기』 권55 「유후세가(留侯世家)」

위의 서술을 보면 정말 지어낸 듯이 보인다. 유방이 한나라를 건국하여 황제가 된 뒤, 장량과 나눈 대화이다. 앞서 우리가 반역 죄인 심문 기록인 추안(推案)과 국안(鞫案) 같은 기록이 있었으리라는 학습을 하지 않았다면 이 대목 역시 지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기 십상이었을 것이다.

역사가 문학이었다면 사람들이 역사와 문학이라는 말을 따로 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훌륭한 역사는 문학이 될 수 있다. 위대한 역사가는 예술성, 창조성을 통해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사책을 읽으며 느끼는 감동의 창조성과, 역사의 ‘창작’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다시 말해 다른 역사책이 주지 못했던 감동을 느꼈다는 사실이, 그 역사책에서 다른 사실이 곧 ‘지어낸 창작물’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말이다. 왜 이런 혼동이 생겼을까?

없는 사실을 지어내면 역사가 아니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서술하되 지어 내지 않는다(述而不作)’는 공자의 말은 사마천과 헤로도토스에서도 드러나듯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학의 오랜 원칙이다. 의식했든 못했든 이 원칙을 깨고 허구를 보태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역사가의 부도덕, 불성실이다.

통상 문학은 “사상이나 감정을 상상의 힘을 빌려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라고 한다. 나는 언어로 된 인간의 자기표현 형식이 문학의 첫 번째 성격이고, 이 표현이 창조성을 띠 수도 있고 상상=꾸밈을 수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둘을 혼동하면 안 된다. 문학=허구가 아니라, 문학=자기표현+허구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경(經)과 사(史)와 문(文)을 철학, 역사, 문학으로 부를 수 있다. 셋은 서로 다른 영역의 인간 활동이다. 그러나 셋은 겹치는 부분이 있다. 철학에도 철학사가 있고, 역사에도 역사가관이 있으며, 소설과 시에도 역

사와 철학이 있고, 또 역사와 철학을 시로 쓸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겹치는 부분은 이들 학문이 ‘인문(人文)’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역사는 ‘문학의 허구성’과 겹치지 않는다.

5. 맺음말 : 역사학의 기초, 기록학

역사를 남긴다는 것은 “이 행위, 인물, 사건은 인간 기억 속에 살아 남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데서 출발할 것이다. 헤로도토스의 말을 빌면 “시간이 뛰어난 공훈들을 망각 속으로 데려가지 못하도록, 또 그리스인의 것이건 야만인의 것이건 간에 빛나는 공적들이 어느 날 명성도 없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사마천은 “시골에 묻혀 사는 사람이 덕행을 닦아 명성을 세우고자 하더라도 덕행과 지위가 높은 학자에 기대지 못한다면 어떻게 후세에 이름을 남길 수 있겠는가”라며 자신이 이름을 남기게 해줄 역사가임을 자임하였다.

『사기』와 『역사』는 답사와 구술, 기록을 통해 실제 있었던 인간의 경험을 남긴 역사서이다. 그들은 직서(直書)라고 표현하든, ‘들은 대로’라고 표현하든, 그들의 저서에서 21세기의 기록학이 말하는 진본성(Authenticity)과 신뢰성(Reliability)을 확보하기 위해 분투하였다. 이 분투가 『사기』와 『역사』가 지닌 가치의 기초가 되었다.

두 역사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켜 준다. 원래 인간은 서로 다른 것이다. 특정한 시공간(時空間)에서 “민족들은 서로 다르며”, “이집트에서 여자들은 서서 오줌을 누고 남자들은 쭈그리고 앉아서 오줌을 누는” 것처럼 풍속과 전통이 다른 것이다. 다름을 인정하여 서로 이해하게 되는 것, 이것이 역사를 배우는 목적 아닐까?

『사기』와 『역사』에서 우리는 가치-연관-학문 이전에 자연스러운 행위의 결과이자, 그 결과에 대한 본능적 보존, 호기심에 의한 탐구를 발견한다.

즉 호모-히스토리쿠스(Homo-Historicus), 호모-아르키부스(Homo-Archivus)의 자연적 발생을 목도하였다. 그리고 다른 인간에 대한 이해의 확장을 경험하게 된다.

훗날 이븐 할둔은 서기(書記)의 자질에 대해, 서기 압둘 하미드가 동료 서기들에게 보낸 편지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떤 기술자들보다 더 훌륭한 성품과 탁월한 덕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서기는 겸양과 정의와 공평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 비밀을 지켜야만 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직해야 합니다. 장차 생길 재난을 미리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물들을 적절한 지점에 배치할 줄 알아야 하며, 불행도 담담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서기는 갖가지 학문 분야를 공부해서 그것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타고난 지능, 훌륭한 교육, 남다른 경험을 통해서……어떤 사무라도 올바르게 준비해야 하고, 적절하고 또 관행에 맞는 형식으로 갖추어놓아야 합니다.”(이븐할둔, 256쪽)

이븐 할둔이 말한 ‘타고난 지능, 훌륭한 교육, 남다른 경험’은 중국 당(唐)나라 때 사관이었던 유지기(劉知幾 661~721)가 『사통(史通)』에서 사관(史官)의 자질로 언급한 ‘재(才), 학(學), 식(識)과 정확히 일치한다. 호기심과 연구, 그리고 식견이 그것이다.

이 선배들의 당부가 근대 분과 학문 체제로 편입된 사관(사마천)=서기(헤로도토스, 이븐 할둔)=아키비스트(21세기 기록인들)의 교육이 분과 학문의 재생산 체제=권력 속에서 기계적, 관료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거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참고문헌〉

- 孔子. 『春秋』. 北京: 中華書局.
- Herodotos, *Histories Apodexis*(천병희 역. 2009. 『역사』, 서울: 도서출판순).
- 司馬遷. 『史記』. 北京: 中華書局(김원중 역. 2015. 『사기』, 서울: 민음사).
- 劉知幾. 『史通』(오향녕 역. 2016. 『사통』, 서울: 역사비평사).
- Ibn Khaldūn. al-Muqaddimah(김호동 역. 2003. 『역사서설』, 서울: 까치).
- 內藤虎次郎. 1949. 『支那史學史』 弘文堂; 東京.
- 李宗侗. 1965. 「中國古代的 史官制度」(閔斗基 編. 1985. 『中國의 歷史認識』上, 서울: 창작과비평사).
- Chavannes, Edouard. Introduction des memoires historiques de Se-ma-Tsien(岩村忍 譯. 1974. 司馬遷と史記, 東京: 新潮社).
- 김봉철. 「헤로도토스의 『역사』의 사료비판 사례」. 『서양고전학연구』, 9, 서울: 한국서양고전학회.
- 宮崎市定. 1996. 史記を語る, 東京: 岩波書店(이경덕 역. 2004. 『자유인 사마천과 『사기』의 세계』, 서울: 다른세상).
- 藤田勝久. 2003. 司馬遷の旅: 『史記』의 古跡をたどる(주혜란 역. 2004. 『사마천의 여행』, 서울: 이른아침).
- 김경현. 2005. 「헤로도토스를 위한 변명」. 『서양고전학연구』, 24, 서울: 한국서양고전학회.
- 윤진. 2005.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나타난 문학적 장치로서의 신탁과 꿈」. 『서양고대사연구』, 17, 서울: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 잭 스나이더. 2007. 『영화 300』, LA: Legendary Pictures.
- Jörg Fisch. 1992. Zivilization/Kultur, Stuttgart:Klett-Cotta(안삼환 옮김. 2007. 『코젤렉의 새념사사전1-문명과 문화』, 서울: 푸른역사).
- 김봉철. 「헤로도토스와 그리스 신화 서술」. 『서양고전학연구』, 27, 서울: 한국서양고전학회.
- 오향녕. 2010. 『기록한다는 것』, 서울: 너머학교.
- 윤택림 편역. 2010. 『구술사, 기억으로 쓰는 역사』, 서울: 아르케.
- 최성은. 2012. 「『헤로도토스와 그의 여행(Podróże z Herodotem)』에 나타난 리샤르드 카푸시친스키의 저널리즘 철학」. 『동유럽발칸학』, 14(1), 서울.
- 오향녕. 2013. 「역사기록, 그 진실과 왜곡 사이-무적함대가 졌다 스페인은 건재했다」. 『신동아』, 서울: 동아일보사.
- 김영수. 2014. 『사기를 읽다』, 서울: 동양고전강의.
- 김귀옥. 2014. 『구술사 연구』, 서울: 한울.

- 노암 대로. 2014. 『300: Rise of an Empire』. LA : Warner Brothers Pictures, Inc.
- 김영수. 2016. 『사기를 읽다 쓰다』, 서울 : 위즈덤하우스.
- James C. Scott. 2017. *Against the Grai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전경훈 옮김. 2019. 『농경의 배신』, 서울: 책과함께).
- 오향녕. 2017. 「역사학과 기록학」. 『기록학연구』, 54, 서울: 한국기록학회.
- 유시민. 2018. 『역사의 역사』, 서울: 돌베개.
- 오향녕. 2018. 『실록이란 무엇인가』, 서울 : 역사비평사.
- 정인철. 2018. 「여행기와 지리서로서의 헤로도토스의 『역사』」. 『문화역사지리』, 30, 서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 오향녕. 2019. 「유시민의 『역사의 역사』에 대한 소감」 ①, ②. 『프레시안』, 서울: 프레시안.